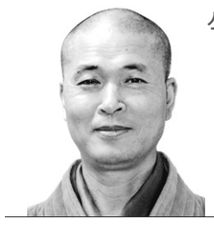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선악 시비를 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화상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상주(常州)에 있어."
학승이 물었다. "춘추는 얼마나 되시는 지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소주(蘇州)에 있어."

問 和尚姓什麼 師云 常州有 云甲子多少 師云 蘇州有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선사들이 대답하는 방식이 나타나 있다. 선사들은 성씨도 잊고 나이도 잊고 산다. 무심무아법(無心無我法)이 선사의 법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잊고 사는데 어찌 성씨와 나이를 기억하겠는가. 단지 질문자의 성의를 생각해서 비유로 대답한 것이다. 조주 스님의 성은 원래 학(郝)씨이다. 성씨를 묻는데 상주(常州)에 있다고 했으니 상주 학씨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상주에 학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를 묻는데 소주(蘇州)에 있다고 했다. 아마도 소주라는 지역에 조주 스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특징적인 어떤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선사는 내 나이가 110살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나' 라는 단정이 들어있고, '110' 이라는 확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없는 것이고 때문에 110세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숫자를 말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 앞에서도 조주 스님의 나이를 묻는 질문에, "염주 알 숫자보다 많아"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스님이 법당에 나와서 설법했다.

"옳으니 그르니 하는 따위의 분별심이 생기면 곧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에 대응할 말이 있는가?"

어떤 스님이 나와서 시자를 한번 툭 건드리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노스님께 대답을 드리지 않는 건가?"

조주 스님은 바로 방장실로 되돌아갔다. 나중에 시자가 가르침을 청했다.

"아까 그 스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앉아있는 자는 서있는 자를 보고 서있는 자는 앉아있는 자를 본다."

上堂云 纔有是非紛然失心 還有答話分也無 有僧出撫侍者一下云 何不祇對和尚 師便歸方丈 後侍者請益 適來僧是會不會 師云 坐底見立底 立底見坐底

붓다는 선악시비를 하지 말라고 했다. 본래 선악도 없고 시비도 없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한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느라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야 한단 말인가. 선사들도 법문 시간에 한결 같이 이것을 강조한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면서 마음이 어지러워진다면 그것은 곧 진심(眞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시비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원래 고요한 진심을 흔들어놓는 것은 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공연히 시비로 마음을 들뜨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조주 스님 역시 이 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는가 물어본 것이다. 그러자, 한 스님이 일어나 조주 스님에게 반박했다.

그 스님의 뜻은 "선악 시비하지 말라는 것에 이의를 달 것이 뭐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할 말이 있는가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문득 시자를 때리면서 왜 대답하지 못하느냐고 재촉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 선악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에 이의를 달 필요 없다. 그런데도 굳이 대응할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강제적이다. 전혀 말하고 싶지 않는, 혹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선동해서 강제로 말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강제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질문하는 선사가 잘못이다. 오히려 선사가 선악시비를 조장하는 것이고, 고요한 것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 스님의 이 말을 듣자, 조주 스님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뭐라고 더 말하다가는 먹칠한 것에 또 오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말을 끝내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방장실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원래 앉아 있는 사람은 서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어있고, 서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어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스님이 이 일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한 이 법을 표현할 줄도 아는 것이라고 조주 스님이 긍정한 것이다. 선사들은 긍정하는 것조차도 본인의 입으로 "그렇다."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함으로써 묻는 자가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선사의 문답법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7〉

집착 벗어나 욕망의 불길 꺼진 열반의 경지

사성제-멸제(滅諦)

몸에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은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판단력이 흐려져 엉터리 약장수나 돌팔이 의사에게 속아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당할 때도 있다. 요즘도 매스컴에서 굿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꾐에 속아 돈을 뜯기거나, 효과도 없는 약을 명약으로 믿고 사서 복용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사건 등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처지가 이와 다를 바 없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점점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안식처를 갈망하는 것이 마치 병든 자가 약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병든 자가 약을 구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상황은 절박한데 사람들은 늘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만 있다. 명예, 권력, 돈이 자신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팔이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같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제(苦諦)'의 세상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그 원인은 알지도 못한 채 엉뚱한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양과 같다. 부처님은 갈애(渴愛)가 모여 고(苦)를 낳는 다고 설법했다. 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인 갈애를 없애야만 한다.

사성제의 세 번째 가르침인 멸제(滅諦)는 이 갈애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갈애는 일체의 괴로움을 대표하는 말로 집착 · 애착 · 번뇌 등과 같은 의미이고, 이 갈애가 남김없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涅槃; nirvana)이라고 한다. 열반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여져 다양하게 확대해석 돼 가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욕망의 불길이 꺼진 상태' 를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그 이유는 열반을 가리키는 '니르바나' 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가 '불어서 끄다', '식히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경전에서는 번뇌를 '타는 듯한 갈증', '모든 것을 집어 삼켜버리는 불길' 등으로 비유해 표현한다. 이 갈증이 해소되고, 불이 다 꺼진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인 것이다. 즉 욕망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태를 가리킨다. 초기경전 쌍윳따 니까야(Saṁyutta-Nikāya)에서는 '열반이란 탐욕, 증오, 미망(迷妄)이 모두 멸해 소진한 것[滅盡]을 말한다' 고 돼 있다. 또 모두 멸해 사라져 버려야 할 '멸진(滅盡)' 의 대상으로 탐 · 진 · 치 삼독(三毒)을 들기도 한다. 이 삼독은 다른 말로 세 개의 불, 즉 삼화(三火)라고도 표현한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주로 '뜨거운 것' 등으로 비유한다.

자주 드는 예 중에 촛불 비유가 있다. 촛불은 자기 몸뚱이인 초를 다 녹일 때까지 꺼지지 않는다. 이 촛불의 작은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으면 제아무리 큰 대궐이라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만다. 마치 인간의 욕심이 커지면서 끝내는 자신의 심신을 파괴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활활 타오르는 거센 욕망의 불길도 통제가 가능하고, 그것을 끌 수 있다고 사성제의 가르침을 통해 선언했다. 몸소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 욕망이 소멸한 상태를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었다. 갈애, 즉 번뇌와 애착, 삼독 등으로부터 벗어나 욕망의 불길이 꺼진 마음의 상태를 '멸제' 의 가르침으로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 열반의 경지만이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⑫

도를 행하는 것은 마음에 있지, 반드시 나를 보아야 하는 것 아니네 〈붓다차리타〉

부처님

부처님, 그래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중생이 아니겠습니까?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가 좋으면 노래만 좋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소원을 말해봐"를 춤추면서, 보여주고 들려준 수영이도 예쁘고, 윤아도 예쁘고, 서현이도 예쁘고…. 좋아지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녀들에게 환호하는 것, 그게 팬(Fan)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방에는 이 이쁜 소녀들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항변을 하는 데, 중생이 중생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겠다"라는, 부처님이 내리치시는 벼락을 맞은 중생들은 산지사방으로 혼비백산했다. 저마다 울고 불고 아우성이었다. 부모를 잃고, 이 너른 세상에 혼자 덩그마니 남겨진 고아들의 심정이었으리라.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부처님을 뵈올 수 없게 되리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붓다차리타〉 열반품) 부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중생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부처님은 따스한 분이 아니시다.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다. "그래, 그렇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얼마나 외롭겠는가? 우선은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봐라. 머지않아 내가 다시 오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따스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부처님을 잘 모르고서 하는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가끔 "부처님은 결코 자비롭지 않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자비롭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무자비할 때도 있다. 그렇게 자비와 무자비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불교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하게 중생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신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중생들의 잘못된 관념을 일깨워주실 뿐이다.

"비록 나와 떨어져 있더라도 내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그는 나와 가까이 있을 것이다. 설사 함께 머문다 하더라도 내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하리라."

나를 보지 말고, 내 가르침을 보게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분이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숭배를 원하지 않으셨다. 당신께서 발견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셨다.

어쩌면 이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외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떤 분이 진실한 스승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자신이 설하는 가르침 보다는 그 가르침을 미끼로 해서 자신을 더 숭배해 주기를, 자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추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는 진정한 스승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스승은 고독할 뿐이다!

정말 그렇다. 부처님은 그분의 모습이나 음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삿된 일임을 〈금강경〉에서도 설하게 된다. 바로 〈붓다차리타〉의 이 말씀과 같은 취지이다.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그가 아직 검증이 다 끝나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소녀시대의 예쁜 소녀들을 보지 못할 때가 오더라도, "소원을 말해봐"는 더 오래 오래 남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노래를 듣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소녀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명심하라! 소녀들은 늙어가도, 노래는 늙지 않는다는 것을.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